

# 전국 첫 전남 ‘찾아가는 선별검사 버스’ 호평

도, 선제 검사 체계...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운영  
市, 전담치료병상 30병상→120병상 4배 늘어

전남도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가 호평받고 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를 신속히 분리, 전담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수도권에 이어 지난 4일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 7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 도입 사례다.

‘이동 선별검사 버스’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이어진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찾아갔다. 현재까지 47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는 광양 127건, 구례 163건, 여수 186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그동안 무증상 잠복환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전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에 신속 항원 키트를 마련하고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찾아가는 검사로 접근성이 향상돼 숨어있는 감염자를 더욱 빠르고 촘촘히 걸러낼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수도권인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 인천소재 요양병원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입원환자 54명, 종사자 13명, n차 감염 13명 등 총 8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황이 위중한 실정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세해 들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부권인 순천시 17명, 광양시

6명 등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이번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운영이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101병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과 이동형 음압기·CCTV 설치, 환기시설 차단, 의료진 및 환자 이동 동선 분리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오는 18일 이후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 이상이 보상되며 요양환자에 대해서 병상단가의 50%이상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다수의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병상을 확보했다”며 “현재 실시 중인 감염취약시설 전수검사 추기도 2주간격에서 1주 간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의 해아림요양병원을 광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병원의 5-6층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자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당초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병상 마련과

요양보호사 등 요양환자를 돌볼 인력, 방역 시설로서의 격벽 공사를 마친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방역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이 병원에 전담 치료 병상이 마련되면 시, 광주시의 확진자 전담 치료 병상이 기존 3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요양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 차원에서 전담 요양병원 확보에 나섰다”며 “해아림 요양병원이 확진자 전담 병원 운영 의사를 밝히 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이곳을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확진자 수용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겨울·임후성기자

## 청해부대 최영함, 이란 한국선박 억류 대응

호르무즈해협 인근 도착  
‘한국케미호’ 나포 직후  
무스카트항 인근서 급파  
항해안전 조치도 실시

청해부대 최영함(4천400t급)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확 운반선 나포 상황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청해부대가 오늘 새벽(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3전 최영함은 전남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청해부대는 도착 직후 나포 상황 주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왕래하는 다른 한국 국적 선박의 항해 안전 등을 위한 역할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왕래하는 한국 국적 상선은 하루 6척 정도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관련 주요 국제기구들과도 협조 채널을 통해 이란 사안 관련 정보교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케미’가 지난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들에 의해 나포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석방 해제를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한국 선박에는 선장·1·3등 항해사·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

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을 통해 이란에 대해 한국 선박의 즉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최영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

을 임무 수행을 할 당시인 2011년 1월 21일에는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과 그해 4월 21일 ‘한진전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한국 선박이 이란에 나포된 상황에 대응한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분야 전문가 90명 구성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5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90명으로 구성된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 네트워크’는 지자체,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간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마을공동체 등 현장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구성은 자원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뤄지며, 분야별로는 ▲행정 ▲기업 ▲마을공동체 ▲문화·관광·홍보 등이다.

센터는 전남형 일·생활균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회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기업 및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여건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일 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제도를 발굴해 기업에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남형 일·생활균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부서)·기업·기관 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남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 ▶1면 ‘광주 공군항 이전’서 계속

이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하며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4차 협의체(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4차 협의체는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민간공항 이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시·도 상생 차원에서(군공항을)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시가 대응적으로 포괄적인 지역 발전책을

수립해 제시하면 군공항 이전 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구성된 4차 협의체가 본래대로 오를 수 있도록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된 광주시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우식 참여차지21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묘안이 있다 해도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며 “시·도 행정 뿐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 등까지 갈등을 해결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자 및 각 지방지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양정자(360405-\*\*\*\*\*)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노단1634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최기봉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12월 29일  
○공고기간: 2021년 1월 6일 ~ 2021년 3월 6일  
○연 락 처: 부산 가정군 정관읍 정관2로 40, 109동 1002호(모전리, 정관산도시현진에비빌)  
(010-3934-1877)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에너지사업

건축자재사업

WBM사업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www.dasco.kr

본 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 29-2 TEL. 010-7070-7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방학로 50 5F 비와사빌딩 505호 TEL. 02-0340-7820  
영남지사: 부산 동구 초량동로 29 K2빌딩 405호 TEL. 051-518-3702  
[내한공통전화] W B M J 전라북도 군산시 오서도동 새만남지구 국가산업단지 신 별비 2호

다스코 가족회사

다스코 | 솔에코(수성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엘도우(어텐셜) | 학교법인충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드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철저한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